

# 음악으로 '둘이 아닌 도리' 교감

## 독일인 불자 음악가 3명, 한마음선원 등서 연주회 열어



2월 1일 서울 초의차명상원에서 차훈명상을 체험하고 있는 독일 불자음악가들. 왼쪽부터 아나타 노벨, 한스옥 에플레, 요한나 에레미아, 사비네 스티저어.

1월 30~31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독일에서 1주일 일정으로 내한한 독일인 불자 음악가들이 법당에서 불심을 담은 즉흥곡을 연주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헤진) 신도인 이들은 2월 1일 초의차명상원(원장 지장)을 찾아 지장 스님에게 차훈명상을 배우고 차훈명상을 경험한 느낌을 즉흥곡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대령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

### 차훈명상 체험 즉흥연주도

한지 10여년이 됐다는 피아니스트 아나타 노벨은 독일 본에서 음악교사를 하고 있다. 올해 66세인 그녀는 대령 스님 팔순을 맞아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연주한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긴다. "지금까지 어두운 내면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주하겠다는 결심을 하자 내면에 빛이 생긴 기분"이었다는 아나타는 "대령 스님을 뵈 때마다 업식이 벗겨지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눈물지었다.

비올라 연주자인 요한나 에레미아는 독일 라이프치히 오케스트라 단원이다. 내면의 감각을 피라미드에 비유한 요한나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내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일생일대 이런 연주는 처음"이라는 요한나는 "연주자 세 명의 호흡이 저절로 하나가 되고 법당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느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내면으로 돌아오는 공심의 길, 그 피

라미드의 정점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녀의 감상이다.

교회음악을 하던 플루트 연주자 사비네 스티저어는 불교에 귀의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드문 피리형 목관 플루트를 연주하는 사비네는 에센에서 음악교사를 하고 있다. 연주할 때마다 그 내면의 느낌이 다르다는 사비네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도반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마음으로 밀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법당의 장엄한 에너지와 또 다른 초의차명상원만의 따뜻한 에너지가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이 방한한 한마음선원 독일 지원 신도회장인 한스옥 에플레(에플린)의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 치료에 힘쓰는 입장에 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세속과 일상에서 입은 상처들이 모조리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며 "법당에서 연주하는 동안 내면의 불성이 다이나믹하게 에너지로 돌아 내면에 귀의하기 때문에 힘이 커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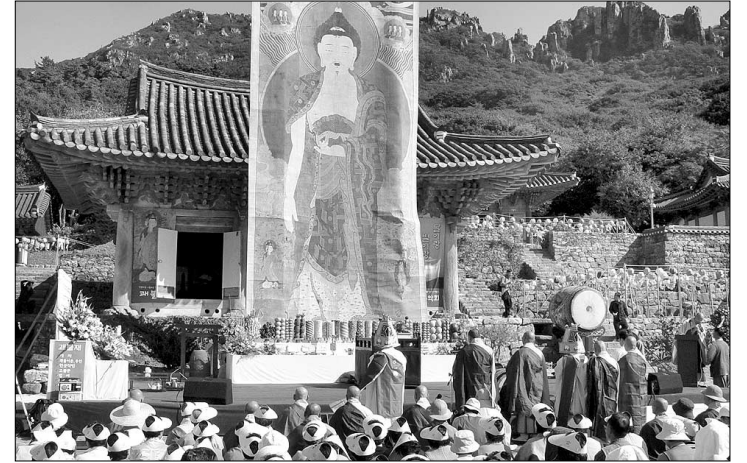
이들은 2월 2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의 촛불제에 참가한 후 4일 귀국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해남 미황사 진법군고(陣法軍鼓)



진법군고의 기원인 해남 미황사. 사진은 과복제 모습.

## 정월대보름 전날 열려... 가락·기법 독특 스님 주민 모여 당제 지내고 풍년 기원

정월 대보름 전날, 해남 송지면 땅 끝마을 사람들은 스님들과 풍물을 진다. 여느 풍물과는 가락과 기법이 특이한 진법군고(陣法軍鼓)의 하나인 산정군고이다. 진법군고는 명칭 그대로 싸움을 하기에 진을 짜고 사기를 높이는 데 쓰는 춤과 음악이다. 따라서 가락이 흘러지 않고 푹푹 떨어지는 엄한 군령으로 진행되어 호흡이 장엄하다. 기법이 까다롭고 익히기가 힘들어 해남의 송지, 황산, 계곡면 등 몇몇 마을에만 전해온다.

군고의 시원은 임진란 당시 승군이 다. 강강술래와 같이 승군의 사기를 높였을 뿐 아니라 승군이 나가고 물러서는 전법의 하나이다. 1607년, 서산대사의 의발과 함께 '진법군고 규식본'이 해남 대흥사로 전해졌다. 아쉽게 원본은 사라졌으나 놀이꾼들이 이 책을 필사하면서 해남지역에 유포됐다.

해남 송지의 산정군고는 미황사 군고를 계승하고 있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에 따르면 "지금부터 130여년전, 미황사 혼허(禪虛 서산대사 10대손) 스님이 쇠락한 절의 불사를 위해 진법군고단을 조성하고 화주길에 나선다. 그러나 1897년 2월 원도 청산도(영화 '서편제' 배경)를 향하던중 들풍을 만난다. 유일하게 살장구를 맡은 젊은 스님이 삼정리 해변에서 구조되어 마을에 군고가 전수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황사(3월17일)와 산정마을(2월 4일)은 매년 바다에 잠긴 군고 끈들을 위해 합동제사를 지내고 있다. 진법군고는 반드시 놀이 시작전에 당제를 지내고 길가에 들어간다. 산정마을에는 100여년째 정월 대보름 전날 당제를 지내고 있다. 17년전부터 미황사 스님들도 산정마을 당제에 동참하고 있다. 당제를 지내고 진법군고를 치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이처럼 진법군고는 스님들의 군고로 시작해 화주를 하는 승갈곡으로 맥이 이어오다 현재는 민가에 전해져 오는데 이르고 있다.

해마다 땅끝마을 해맞이 축제에 올리는 풍물이 바로 진법군고이다. (061535-3521, www.mihwangsang.com 이준엽 기자

**각종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대비법 요/배개

원인모를 오랜통증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완  
난치병 치해방

증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1 완전 맞춤 치유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 닥터스 02)782-0022

## 군·청소년들에 불서 보급

### 부산불교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운동 펼쳐

2월 1일로 개국 11주년을 맞은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은 개국 11주년을 기념해 불서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2월 1일 군수기지사령부 군법당 금연사(순병철 법사)에서 도서기증기념법회를 갖고 불서 1천여권을 전달했다. 이어 부산불교방송은 육군 53사단, 해군 3함대를 비롯 해동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동해중학교, 학산여자중학교 등 6곳의 학교에 불서 총 6천여권을 전달하게 된다.

부산불교방송 주최, 부산불교신도회, 부

산불교연합회, 부산시교육청, 부산불교교실법인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로 불자들에게 증정받은 책과 영광도서 협찬으로 마련된 불서를 군인과 청소년들에게 보급하게 됐다.

부산불교방송 관계자는 "앞으로 불교서적 나누기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방송은 이날 도서기증법회 현장을 특집 생방송했다.

천미희 기자

### 부산 반야회 자비의 쌀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개인택시 반야회(회장 손경수는) 2월 2일 오후 3시 정수사주지 원광에서 16개구에서 추천된 독거노인 150세대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반야회 회원 차량내에 '검통'을 비치, 복지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것. 전달식에서 손경수 회장은 "앞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봉사과 자비행에 앞장서는 반야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 보광선원 선지식 초청법회

부산 보광선원(주지 황백)은 2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고승초청 선지식 견진대법회를 봉행한다. 2월 9일 첫날은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이 입제법문을 한다. 이어 2월 16일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2월 23일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3월 5일 화향법회 창계사조실 고산 스님이 법문한다. (051)973-7158 천미희 기자

### 염불공양모임 장학금 전달

부산불교TV 염불공양모임 장학회(회장 하성심)는 2월 2일 염불공양모임 사무실에서 제6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태음 스님을 법사로 진행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학생 3명, 고등학생 8명에게 총 5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 울산불교교육대학 졸업식

울산불교 교육대학(학장 성민)은 1월 24일 제 25기 교리반과 제3기 꽃꽃이반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이사장 불암 스님(법사주 주지)과 학장 성민 스님(해남사 주지) 부학장 보화 스님(속천암 주지) 등 스님과 졸업생 150여명이 참석했다. 1993년 2월에 개설된 울산불교 교육대학은 그간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6년에도 제26기 불교교리반, 경전반, 다도반, 꽃꽃이반 신입을 모집하고 있다 (052) 266-3318 서병수 울산지사장

### 대구 법왕사 백고죄법회 봉행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제16회 백고죄법회를 봉행한다. 2월 13~5월 23일 100일간 100분의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여는 이번 법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부모은중경과 부처님 팔상성도법문, 금강경, 아미타경, 영가법문으로 진행된다. (053)766-3748 배지선 기자



### 이진록 불자 황우석 지원금 기탁

대구의 독실한 불자가 '황우석 사태의 진실규명과 연구 재개를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가칭)'에 전달해 달라며 천 만원을 1월 26일 대구불교방송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에 사는 이진록(47·사진) 불자. 이 불자는 용접 일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인도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 3년간 혼돈이 모은 금액 천만 원을 모두 내놓았다.

이진록 불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성과를 거둔다면 지금의 천만원이 몇 배의 가치를 날게 될 것"이라며, "성지순례보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지선 기자

#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고 박승암스님 등 여러분의 보유자를 지정한 바 있는 영산재가 지난해 김구해스님이 보유자로 새로 지정되어 영산재를 보존하는 정통 도량입니다. 불교음악, 불교무용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내용 : 실기강의

학년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월,수	오후 3시-5시	마일운 (전수교육조교)	50명
2학년	각배과	목	오후 3시-5시	이기봉 (전수교육조교)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김구해 (보유자)	50명
불교무용 (작법)	바라/나비춤/뽕고춤	화	오후 3시-5시	한해사 (강사)	50명
불교의식 음악/무용 (작법)	불교의식 이론(1학기)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2학기)	월,화	오후 1시-3시	심만춘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1학기개설 김법현 (동국대 국악과 교수) 2학기개설	약간명

### 2. 응시자격

승려, 일반인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합격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2) 증명사진 3매(반명함)

###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6년 2월 1일 ~ 3월 5일까지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nfus0821@naver.com

### 6.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7. 입학 및 개강일

2006년 3월 6일 월요일 (봉원사 설법전)

### 8. 특 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중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 9. 문의처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FAX 02)393-9450